

보 도 설 명 자 료 (19. 11. 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11.1(금) 「수출상황 점검회의」는 수출 감소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민관합동으로 그간의 수출지원 실적과 연말까지 남은기간 동안 차질없는 수출지원 추진을 점검하는 회의임
(조선일보 11.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금번 회의는 그간 수출지원을 금년 수출지원 예산이나 지원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지원·이행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며,
- ◇ 수출보험한도 확대(2배→2.5배), 한도 일괄 증액(10%)의 기한 연장(~'20.1분기),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 8.2조원으로 보장 등은 지금까지 발표된 바 없음
- ◇ 11월 2일 조선일보 <수출 11개월째 추락...정부, 기업 투자금 350조를 '대책'이라 발표>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수출이 11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앞서 발표한 대책 등을 수출대책이라고 발표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금번 「수출상황 점검회의」(11.1)은 수출 부진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민관이 함께 그간 추진했던 수출지원 대책의 실적과 연말까지 계획한 수출지원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되었음

-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예산이나 지원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지원·이행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며,

- 산업부는 3대 핵심산업 중심의 투자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「민관합동 투자지원단」 등 지원체계를 가동해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해 추가 투자를 적극 촉진할 계획임
- 아울러 수출보험한도 확대(2배 → 2.5배), 연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한도 일괄 증액(10%)의 기한 연장('20.1분기),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, 3,000억 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, 소재·부품·장비기업 전용 수출바우처, 「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」 8.2조원 규모로 확대 등은 올해 연말 및 내년에 신규로 지원할 프로그램임

※ 문의: 산업부 무역정책과 박재영 과장, 이주노 사무관(044-203-4022)